

임실N치즈축제 발빠른 준비

순창군, 주민주도형 농촌마을 조성

제전위, 축제 잘된 점·미흡한 점 등 2023 결과 보고회 내년도 10월 3일~6일까지 개최 확정 등 임시총회 개최

올해 대성공을 거둔 임실N치즈축제가 10회째를 맞는 내년 축제 준비를 위해 발 빠른 준비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임실N치즈축제제전위원회(이하 제전위)는 지난 28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관 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축제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심민군수와 제

전위원, 대행사, 정책지원연구 용역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임실치즈마을, 임실을 일원에서 개최된 2023 임실N치즈축제 결과보고회를 가졌다.
총회에서는 잘된 점과 미흡한 점에 대한 종합적인 피드백을 가졌으며, 정책지원연구 용역사로부터 축제 지역

주민 관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해 온 용역 결과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제전위원들의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통해 2024년도 '10번째'를 맞는 임실N치즈축제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 의결했다. 앞서 군은 2023 임실N치즈축제가 끝난 직후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의견 청취 및 자체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군은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내년 축제 일정이 확정된 만큼, 대행사 선정 등 세부 실행계획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제10회 2024 임실N치즈축제는 새로운 도전 속에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방문객이 안전하게 축제장을 찾아 즐길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축제는 임실N치즈축제 개최 이래 역대 최고로 많은 관광객 방문과 함께 축제가 끝난 후에도 축제장을 화려하게 수놓은 천만송이 국화꽃과 이국적 풍경을 선사하는 야간경관조명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으면서 국화 배치기간동안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다녀갔다. 아울러, 임실을 일원까지 축제장을 확장하여 많은 방문객이 테마파크는 물론 임실읍내 일원까지 방문했다.



임실N치즈축제제전위원회는 지난 28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관 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축제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2024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참여마을 모집

순창군이 총 25억원을 투입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주민주도형 농촌마을을 조성해 나간다.
군은 오는 12월 14일까지 '2024년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에 참여할 관내 마을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이 25억원은 지역 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 규북예산으로 마련됐으며, 군은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내에 각 마을의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은 노후화된 마을회관 리모델링 등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주민센터 조성, 마을안길 정비 등의 지역경관개선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 교육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촌분야 복합 지원사업이다.
특히, 이 사업은 각 마을의 다양한 유·무형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되며, 군은 올해 5개소를 선정해 선정된 마을에 사업기간 3년내에 최대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사전 예비 단계인 마을리더교육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육 이수, 전북도생생만들기 기초단계 등 마을 소재사업 추진, 농촌 현장포럼 또는 이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이행한 마을에 한해서 공모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 공모문을 받아 오는 12월 14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회의록 등을 첨부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해당 읍면에서 자체 사업성 검토를 거쳐 신청서가 제출되면, 자격요건 서면심사를 통해 적합성 검토 후 마을 대표자의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는 지난 27일과 29일, 2024년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남원시, 지적 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 추진

남원시는 지난 27일과 29일, 2024년 지적 재조사사업 대상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등 융·복합 산업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국가사업이다.
시는 내년도 사업 대상지로 수지지구(등동, 산촌, 양촌마을), 금지지구

(인동, 입서, 서재, 매촌, 상신, 임촌마을), 산동면 태평지구(신풍, 태평, 이곡마을), 이백면 효기지구(효촌, 효기마을), 산내면 산내1지구(입석, 상황, 중황, 하황, 장항마을) 등 총 5개 지구(3,530필지, 146만㎡)를 선정하고, 국비 7억여 원을 들여 2025년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필요성, 추진 절차 등을 설명하였고, 특히 사업지구 지정신청 요건인 토지소유자 수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동의서 제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개인형 인지훈련 로봇구입 인공지능 향상

치매 예방 프로그램 등 활용

임실군이 두뇌 향상 콘텐츠 제공을 통한 뇌 기능 활성화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일대일 개인형 인지훈련 로봇을 구입하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치매 예방 프로그램 및 치매 환자 센터 프로그램 등에 활용한다.
개인형 인지훈련 로봇은 어르신의 인지능력에 따라 맞춤형 훈련이 가능하고 일상생활과 유사한 상황에서 기

역력, 집중력, 언어능력 등을 훈련할 수 있는 20종의 인지훈련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으며, 전용 블록 도구를 통해 터치, 부차, 흔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또한, 로봇에 탑재된 프로그램은 인지훈련, 회상훈련,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다양한 콘텐츠에 실시간 접속해 두뇌를 자극시켜 치매 악화 방지 및 증상 완화에 기여한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들은 처음에는

생각처럼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아 어려워했지만 점차 블록 조작에 익숙해지면서 프로그램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심민군수는 "기술 발달로 다양한 전자기기를 활용한 인지 중재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홍부골 포도, 과일산업대전서 '최우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2023년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올해 13회째를 맞는 대전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남원시는 그동안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남원농산물의 우수성과 남원농산

물 통합 브랜드 춘향에인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소비자에게 남원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여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에 일조해왔다.
올해 최고의 과일을 뽑는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서 남원시 이영면 이영주 농가의 홍부골 포도(캠벨)가 포도 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 받았으며, 이 씨는 고품질 과일 생산을 위해 꾸준히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습득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지역 포도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편 남원시농업기술센터 고인배 소장은 "앞으로도 남원 7대 대표품목 육성을 위해 관련 시설지원 및 이상기온 대응 등 기술지도 보급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순창군, '에이즈의 날' 홍보

순창군이 '제36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맞아 오는 12월 7일까지 에이즈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집중홍보를 추진한다.
'에이즈 예방으로 위험제로, 에이즈 검사로 불안제로'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전광판, 군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진행되며 관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순창을 재래시장 및 버스터미널 방문객 대상으로 오프라인 홍보도 함께 할 예정이다.
에이즈(AIDS)는 인체 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몸속에서 침입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각종 감염성 질환이나 악성종양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고 대처가 미흡할 시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질환이다. 단, 조기검사를 통한 빠른 치료를 받을 경우 증상 악화를 방지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한랭질환 예방 '앞장'

순창군이 겨울철 한파를 대비해, 건강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관리에 앞장선다.
순창군보건의료원은 정담간호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건강관리 담당자 30명을 동원해 경로당과 가정방문하여 겨울철 한파 대비와 한랭질환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겨울철에는 찬 공기와 낮은 기온으로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상승하여 심근경색과 뇌졸중 발생이 증가하고 저체온증, 동상, 손상 등의 한랭질환, 낙상사고가 다수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저체온증, 동상, 손상 등 한랭질환별 증상 및 응급조치 방법과 빙판길 낙상사고 줄이는 요령에 대해 교육하고 혈압·혈당 등 기초검사를 통해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순창군보건의료원 조석범 원장은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건강관리가 어려운 어르신, 만성질환자들의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관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